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31.(화) 06:00 < 3.31.(화) 석간 > 배포 2026. 3. 30.(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을 연결하여 1,500명 고용 창출

-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 간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 고용시장은 '쉬었음' 청년 문제와 산업 현장의 구인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3.9%(175.7만명)를 책임지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네패스·싸이맥스, IT 분야 펄어비스, 식품 분야 샘표·BBQ, 바이오 분야 한미약품·덴티움 등 우수 중견기업 90여 개사와 약 6,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1:1 맞춤형 채용상담이 진행되고, 사전 서류 지원자는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추진한다.

그간 산업부는 11차례 박람회를 개최하여 9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대전광역시에서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2,0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실적 : ('22년) 993명→('23년) 1,139명→('24년) 2,293명→('25년) 2,178명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이규봉 중견기업정책관은 "우수 중견기업과 청년인재를 잇는 이번 박람회가 청년들에게는 구직난을, 중견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박람회, 우수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중견기업과 지역대학간 협업을 통한 인재양성 등을 통해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담당자	사무관	박정민 (044-203-43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간 일자리 연결을 통한 고용 창출

○ **일시/장소** : '26.3.31(화) 10:00~17:00 / aT센터 제1전시장

○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규모** : 중견기업 90여 개사, 구직자 약 6,000명

○ **참여기업** : (반도체/디스플레이)싸이맥스·네패스, (IT)펄어비스·안랩·(주)다날, (바이오)한미약품·덴티움, (식품)샘표식품, BBQ 등 100여개사

□ 개막식 개요

○ **일시/장소** : '26.3.31(화) 10:00~10:55 / aT센터 제1전시장

○ **참석자** :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 **세부계획(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환담장	10:00 ~ 10:10	10′	사전 환담	
	10:10 ~ 10:20	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안내 - 성과 및 특화 프로그램 소개	
	10:20 ~ 10:30	10′	중견련-산기협 MOU 체결	
행사장	10:30 ~ 10:35	5′	행사장 이동	
	10:35 ~ 10:40	5′	커팅식 및 기념촬영	
	10:40 ~ 10:55	15′	박람회장 참관	